

# 역경보살 월운 스님 '증의' 재현

## 3월 28일 전강제자들과 '무상계강화' 독회 열어

역경(譯經)은 언어(공간)와 세대(시간)를 동시에 넘나드는 고된 작업(逆境)이다. 단순히 글을 옮기는 작업이 아닌 글 속의 뜻까지도 오롯이 전하는 어려운 작업인데다 인력과 시간 등에 애로사항이 많아 '제대로' 역경하기란 희유한 일이다.

역경이 전문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고비용 사업인 까닭에 기관조차도 전통 방법을 살리기 힘든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역경보살로 칭송받으며 평생 역경의 길을 걸어온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이 전통 역경 방식의 하나인 증의(證義)를 재현해 눈길을 끈다.

증의는 원전과 번역문을 비교해 번역한 뜻이 올바른지를 판별하는 작업이다. <한글대장경>을 비롯한 근래의 역경작업에 증의가 있었지만 고정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월운 스님은 3월 28일 전강제자들과 남양주 봉선사 운하당에서 <무상계강화(無常戒講話) 독회>를 열었다. 2008년 12월 동국역경원 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00여 일만의 일이다.

역경원 원장직은 놓았지만, 역경보살의 본분사만은 놓지 않았던 스님은 그동안 <무상계강화> 저술에 매진해 왔다.

<무상계>는 338자로 구성된 간이경전으로, 원효 스님이 만주 벌판에서 머리 없는 무두귀(無頭鬼)들을 제도하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진다. 짧고 간결한 내용으로 시다림 등 의례와 수행에 널리 유통됐다.

이날 운하당에는 정원 준수 진원 사원 법등 스님 등 11명의 전강제자와 능엄학림 학인 스님들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다수의 전강제자들은 사전에 원고를 검토하고 이메일 등으로 월운 스님에게 의견을 제기해 왔다.

월운 스님의 <무상계>가 짧지만 알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경(正經)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공



덕경류(功德經類)에 섞여 재장(齎場)이나 곳판으로 내몰린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그동안 역경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 번역한 경전을 꼼꼼히 점검하는 절차가 생략돼 온 것에 늘 마음에 걸렸다. 죽기 전 전통 역경 방식을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월운 스님은 <무상계>를 해제와 독송용무상계, 과도와 과명 풀이 등을 실었다. 본문은 △무상계의 공덕을 미리 찬양하심 △무상계 뒤는 법을 직접 보이심 △뒤아던 공덕을 찬탄하심 3과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3장으로 구분한 뒤 각각에 강화를 더했다.

서분과 정종분 유통분으로 삼분(三分)이 갖춰진 정경과 비교해 정종분만 있는 <무상계>는 <반야심경> 등과 함께 가족과 살은 없애고 떠난 남은 동물과 같이 골경(骨經)이라 불린다.

월운 스님은 골경인 <무상계>를 스님만의 안목으로 분석해 과도를 그렸다. 평생 경전과 씨름해온 월운 스님의 학식은 불법의 정수가 골경에 녹아 있듯, 해제부터 13장 강화까지 구월구월마다 담겼다.

영가(靈駕)의 여원에 대한 기원을 비롯 <금강경> <법화경> <삼국유사> 등 내전(內典)과 외전(外典)을 넘나드는 박학한 이야기도



3월 28일 봉선사 운하당에서 열린 <무상계강화> 독회를 진행하는 월운 스님(왼쪽)과 전강제자들의 모습.

있고, 12인연의 상의상관성을 홀통의 대중에 물이 들고 남으로 설명한 대중설법 같은 비유도 있다. 노장이 후학에게 전하는 가르침은 각주 끝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누가 했는지 고려하지 말고, 같은 배 탔다는 심정으로 잘 되도 못되도 하나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아끼지 말라."

월운 스님의 당부가 끝나자 학인 스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무상계강화> 본문을 읽기 시작했다. 120장 분량의 원고 중 각주를 제외한 본문이 읽혀지는 동안 문체가 있는 부분에는 거침없이 토론이 이어졌다.

"언어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자가 틀렸습니다." "앞과 뒤의 한자가 혼용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 마라톤 토론이 벌어진 5시간 동안 스승과 제자의 상(相)은 간 곳 없다. 모두가 역경사실 뿐이었다.

이날 증의에 참여한 스님들은 스승 월운 스님에게 점검도 받았다. "경전을 보는 사람이 고전이 약하다"는 지적부터 "00 스님 예 불 거르지 말고 나와"라는 말까지. 일독(一讀)이 끝났다. 월운 스님은 "무상계를 제방에 보급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자신의 벽을 찾을 수 없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

각할 것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고전을 홀로 번역하는 풍토를 고치고자 자리를 마련했었다"라며 "실부르게 경전을 번역하겠다고 접근하는 이들이 많은 요즘, 역경을 제대로 하려면 고전을 두루 살필 안목과 소양은 물론 자기 수행 등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상계강화>는 수차례 증의와 운문 등을 더 거친 후 출간될 예정이다.

동국역경원 박종린 위원은 "증의는 번역이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강주급 이상의 스님은 왜야 제대로 증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가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봉선사에서 재현된 증의는 역경의 바른 본보기를 보인 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현된 전통역경 방식은 동국역경원이 설립초기 번역과 증의, 운문에 대해 각 위원회를 두고 운영한 적은 있으나 인력 및 시간 부족, 경비절감 차원에서 지속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가 전통 역경 방식을 도입해 5월 회향될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에 번역자간 소통 중심의 다자간 번역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원효 스님 통합사상 통일 원동력" 불교문화연구 9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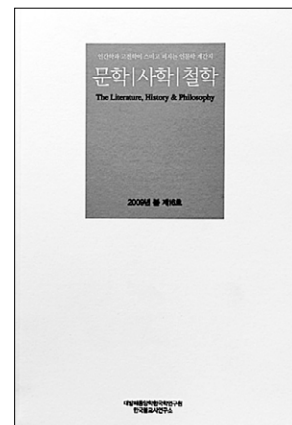
## 고영섭 교수 '문·사·철' 16호서 주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신라 원효 스님의 통합사상을 통해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문학·사학·철학> 제16호에 기고한 '원효의 통합사상'에서 후삼국통일의 배경이 됐던 원효의 개괄(開合)과 화회(和會)의 논리를 강조했다.

고영섭 교수는 "원효는 한민족의 통합을 위해 평생 고뇌한 인물이었다"면서 "원효가 대승보살의 삶의 요증, 역경을 제대로 하려면 고전을 두루 살필 안목과 소양은 물론 자기 수행 등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 교수는 원효의 통합논리가 통일신라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한 예를 설명했다. 이어 한민족공동체



한국불교사연구소와 발해동양학 한국학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계간 <문학·사학·철학>.

통일방안으로 제시된 화해협력 단계는 전개통합의 논리에, 남북연합 단계는 화쟁회통의 논리에, 통일국가 단계는 삼승일승의 논리에 배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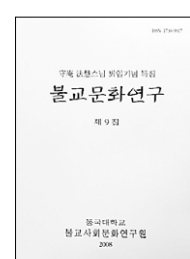
고영섭 교수는 "원효의 통합논리는 통일신라의 이념적 기반이었다"며 "원효의 통합논리는 남북고착이라는 절대이념을 타파하고 통일조국이

라는 공동목표와 공동이익을 수립할 지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학·사학·철학> 제16호에는 박정진 칼럼니스트의 '단군 신화에 대한 신해석' 두 번째와 김진영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언어와 문헌의 박물관', 정영식 연구교수(불교문화연구원)가 번역한 '〈벽암록〉 해석을 둘러싼 문제' 등이 실려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영해)은 최근 <불교문화연구> 제9집을 발간했다. 2008년 8월 퇴임한 법혜 스님을 기리며 제작된 이번 호에는 성본 스님(동국대)의 '선문화의 이해'와 진월 스님(동국대)의 '한국불교 전통의 특성과 현실적 과제'이고, 최진구(동국대 박사과정)씨의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방안' 등이 게재됐다.



'불교문화연구' 9집.

한편, 법혜 스님은 1945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했다. 1957년과 1961년 해인사에서 각각 도원 스님과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제시행위원 등을 맡고 있다. (054)770-2506 조동섭 기자

# 한문자료 강독 프로그램 마련 영문학술지 발간

## 한국미술사교육학회 4월 3일~6월 5일

석가탑 중수문서 등 성보문화재 조성원문을 해석·분석하는 한문자료 강독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한국미술사교육학회(회장 최성은)는 4월 3일~6월 5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덕성여대 종로캠퍼스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한국불교 미술 조성원문의 분석'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승재 교수(서울대)는 4월 3일 '신라 백지목서화엄경 조성원문의 해독'과 10일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해독'에 대해 강연한다.

정병삼 교수(숙명여대)는 17일 석남암사 삼층석탑과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사리호기 등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 나온 사리호기'를, 24일에는 황룡사 구층목탑 철주

본기와 해인사 묘길상탑지 등을 소개로 '통일신라시대 탑지와 조상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최연식 교수(목포대)는 5월 1일 '백제 사리함 및 통일초 불상 조성기의 분석'을 시작으로, 8일과 15일에는 각각 '통일신라 사찰 조성기의 분석'과 '고려시대 사찰 형지안의 분석'에 대해 강독한다.

김홍삼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는 5월 22일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발원문'을, 29일에는 '고려 후기 왕실의 사경 발원문'을, 6월 5일에는 '조선 세조대 왕실의 발원문'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미술사교육학회는 매주 강의 내용을 홈페이지(www.kaahe.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 (02)901-8456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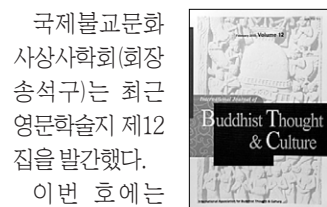
# 영문학술지 발간

##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회장 송석규)는 최근 영문학술지 제12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혜원 스님(동국대)의 '초기 선종에서 믿음의 의미'와 계환 스님(동국대)의 '대승적 경전으로서의 의경(疑經)에 관한 연구', 김홍표 교수(동국대)의 '경전 언어와 침묵' 등 8편의 논문과 1편의 문헌비평이 수록됐다.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영문학술지는 인도 미국 태국 일본 덴마크 등 11개국 불교 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매년 2회 발간된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발행 영문학술지.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단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물담고 몇 스러울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아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재분위기 정음」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펼친 상태 (출조 및 인쇄없이 합지 방식)

**☞ 현우기익**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043)877-8236 011-9790-4788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포인트  
■ 농협 415051-51-000057 예금주: (주)국민포인트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 천 / 년 / 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